

경제·사회적 요인이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재영*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충정로 1가)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제·사회적 요인이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효과에 대하여 복지패널 3차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화로지(Odered Logit)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이 주요 독립변수로 채택되었으며 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사회생활요인인 여가생활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가족간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 긍정적 생활태도 등이 여성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인 주택유무, 가처분소득수준 등은 사회생활요인에 비교하여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간 불화, 저소득 가정 해당 등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개선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생활만족도, 순서화로지(Odered Logit)분석, 한계 효과

* 교신저자(우재영) 전화: 010-7928-2259; email: jywoodp@hanmail.net
100-707)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농협중앙회 본관 8층 농촌지원부

1. 서론

우리 사회는 대량생산과 소비의 시대를 지나 이제 삶의 만족이 중시되는 문화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국민을 재생산하는 ‘모성’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기본단위가 되는 가정의 중심이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 또는 농업인과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하고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는 등 여성의 생활만족도의 균형적 향상의 중요성 커지고 있다.

생활만족도 연구는 인간의 삶의 만족과 행복이 중시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상적 삶의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표도출과 측정이 모호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체로 개개인의 욕망에서 공약수를 찾아내고, 사람들이 일상적 생활에서 공동으로 경험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이것들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 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효과를 복지패널3차 자료를 활용하여 인과적으로 탐색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II절에서는 생활만족도의 개념과 관련이론들을 살펴보고, III절에서는 연구가설과 변수를 설정하고 기술하며,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살펴보고자 한다. IV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한계효과를 설명하며 V절에서는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경제적요인과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여건의 향상이 자동적으로 개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되었다.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의 개념은 1961년 Neugarten의 2인의 연구자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한 후부터 보편화되었다. 생활만족도는 개념이 주관적·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증분석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의 특정 하위요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 생활의 만족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감정으로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Loke, 1976; 방하남, 2000).

경제적 요인으로서의 부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Diener, Horwitz, Eamons(1999: 288)는 국가 간의 샘플에 있어서 1인당 소득과 주관적인 복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반대로 Easterlin(1995)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Bjornskov 2003: 4-5), Inglehart와 Klingemann(2000)은 소득이 낮은 국가가 오히려 소득이 높은 국가보다 시민의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박희봉외, 2005). 또한 Frey & Stutzer (2002)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인 조건은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는 GDP가 연간소득 US \$10,000달러 이상이 되면 소득증가에 대비 주관적 안녕감의 증가분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했다. Diener 등(1993)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간소득이 US \$15,000 이하인 집단에서 최고점을 이룬다고 설명하

였다.

Easterlin(1974)은 소득수준에 초점을 두고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 소득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반면, 자신의 소득에 대한 만족 수준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과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iswas-Diener, et, al, 2004). 미국 내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의 행복수준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개인의 소득수준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개인의 행복수준은 정체상태에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정진, 2008).

Bertrand Russell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 불행을 느낀다고 말한 것처럼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변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자신의 상대적인 지표가 생활만족도를 보다 잘 나타낼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소득가설에 의해 효용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소득이외에 주위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볼 수도 있다.

2.2. 사회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경제적 측면이외에도 개인의 사회적 배경이 삶의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즉 직업유무, 가족관계, 건강, 교육, 사회적 연대, 제도의 질, 소득불평등 등과 같은 비경제적·사회적 변수들이 더 비중있게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Easterlin(1974; 1995: 118) 등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로 결혼한 사람, 고소득자, 여성, 백인,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자영업자, 퇴직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을 표시하고 있고, 연령은 30대를 중심으로 U자 곡

선으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Mullis(1992)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단순히 사회·경제적 배경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심리적·긍정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Diener 등(1999)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삶의 만족에 약 2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박희봉외, 2005). 그리고 Rudnick & Kravetz는 가족과 친구 등과 관계가 좋을수록 건강(Myers & Diener, 1995)하며,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 폭넓은 관계망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박길성, 2002).

한편 20세기 들어서면서 여러 학자들은 인간이 지닌 긍정적인 특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긍정적 자존감, 통제감, 외향성, 낙관성, 긍정적 태도, 삶의 의미와 목적성이 제시되었다(Diener, 1999; Myers, 1992). 또 다른 연구로는 생활만족도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효율적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상호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다. 즉, 갈등상황에서 구성원들이 각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서로 현황 문제에 대하여 토의를 하면 신뢰도와 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Kerr & Kaufman-Gilliland, 1994; Orbell, van de Kragt, & Dawes, 1988). 토의를 통한 의사소통이 협력행위를 증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Kollock(1988)은 먼저, 갈등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집단규범이 되어서 동조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토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협력을 선택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다른 구성원에 대해 신뢰감이 증가하고, 행동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어 줌으로써 협동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토의를 하다보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떤 행동이 집단의 번영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집단정체감이 높아지고, 이 집단정체

감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할 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게 만들어 협동행위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3. 연구설계와 분석모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와 세부 데이터 처리 및 가설설정을 <표 1>과 같이 설계하였다. 종속변수인 전반적 생활만족도는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조사되었다.

먼저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주택보유 여부, 가처분 소득, 저소득 가정해당 여부, 인터넷사용여부, 외식교양오락비 지출수준을 선정하였다. 최근의 세계는 정보와 지식이 재화 또는 생산요소로 등장하여 개인 및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정보통신기술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견해와 최신의 정보를 수시로 검색·획득할 수 있다는 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웹채팅, 전자상거래, 리얼 오디오, 화상강의 수강 등을 통한 다양한 학습, 각종 취미동호회 가입 및 활동 등과 같은 동시적 상호작용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와 문화의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성들에 비해 생활의 만족도가 저하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정한 통신요금을 지출해야 하므로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는 변수라고 분류하였다.

주택소유여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관심대상이고 때로는 부의 척도가 되기도 하면서 생활만족도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고, 가처분소득은 경제적 수준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이며 외식 및 교양오락비 지출수준은 취미나 문화생활을 통한 스트레스의 해소나 개인의 문화적 욕구충족에 주요한 수단이 되는 설명변수이므로 가처분소득수준과 저소득가정 해당여부, 외식교양오락비의 지출수준을 경제적 변수로 설정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사회문화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 5점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다음의 변수들 중에서 가족간 의사소통 요인과 사회생활요인 관련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는 가족간 빈번한 의견 충돌, 가족간 논의에 의한 문제해결, 긍정적 생활태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로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징은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민주주의나 남녀평등 사상이 혼재하여 다양한 의사소통방식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표 1〉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명	데이터 처리	가설 설정	
종속 변수	전반적 생활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1) ② 대체로 불만족(=2) ③ 보통(=3) ④ 대체로 만족(=4) ⑤ 매우 만족(=5)		
독립 변수	경제적 요인	인터넷사용	더미변수 처리(미사용=0, 사용=1)	+
		주택유무	더미변수 처리(전세,보증부월세,월세=0, 자가=1)	+
		가처분소득	연속변수	+
		저소득가정	더미변수 처리(미해당=0, 해당=1)	-
		외식교양 오락비	연속변수	+

통계변수	사회생활요인	가족간 의견 충돌 많음	① 매우 부정 (=1) ② 부정 (=2) ③ 보통 (=3) ④ 긍정 (=4) ⑤ 매우 긍정 (=5)	-
		가족간 논의로 문제 해결	① 매우 부정 (=1) ② 부정 (=2) ③ 보통 (=3) ④ 긍정 (=4) ⑤ 매우 긍정 (=5)	+
		긍정적 생활태도	① 매우 부정 (=1) ② 부정 (=2) ③ 보통 (=3) ④ 긍정 (=4) ⑤ 매우 긍정 (=5)	+
		사회적 친분 관계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1) ② 대체로 불만족(=2) ③ 보통(=3) ④ 대체로만족(=4) ⑤ 매우 만족(=5)	+
		여가생활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1) ② 대체로 불만족(=2) ③ 보통(=3) ④ 대체로만족(=4) ⑤ 매우 만족(=5)	+
인구통계적요인	거주지역	더미변수 처리(서울,광역시, 시=0, 군·도농복합군=1)	-	
	배우자유무	더미변수 처리(미혼,이혼,사별,별거=0, 유배우자=1)	+	
	최종학력	1.중졸이하, 2.고중퇴, 졸, 3.전문대재학, 중퇴, 졸, 4.대학재학, 중퇴, 졸 5.대학원이상	+	
	가구원수	연속변수	-	

즉,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가족 구조, 가족 구성원의 개성과 생활환경과 같은 가족 체계적 속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가족 구성원들은 반복적으로 특정한 방식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수용·해석함에 따라 의사소통 습관이나 규칙을 형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소통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경청하는 방식, 명령이나 간섭형 또는 다툼형의 부정적 말투, 대화의 회피나 단절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은 가족간 빈번한 의견충돌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반면, 가족간 문제해결을 진지한 논의를 통해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가족은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대조적인 의사소통방식이 구성원의 만족이나 불만족을 야기하게 되고 또 이는 가족간의 화합이나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평소에 부정적인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에 비해 긍정적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은 동일한 생활조건에서도 폭 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하고, 현실의 고난을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여기는 등의 낙천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회적 친분관계의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생활만족도 향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변수로는 인구통계적 요인을 사용하였는데 주요 변수로는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최종학력, 가구원수를 선정하였다. 거주지역은 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지역의 자연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배우자의 유무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학력수준변수는 교양과 지식을 높이며 보다 나은 조건의 직장선택과 안정적 소득확보 및 배우자 선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수로써 여성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학력수준이 높아지면 기대수준이 높아져 자신의 생활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가구원수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사부담과 갈등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므로 생활만족도와 부정적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선정된 변수들의 통계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을 거쳤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발췌 분석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와 Tolerance계수를 검증하였다. 셋째,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순

서화로짓(Odered Logit)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계함수에 대한 한계효과와 설명변수별 확률의 한계효과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을 위한 도구로서는 SAS 9.1을 활용하였다.

3.2. 분석대상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복지패널 3차자료이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본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여성 6,726명으로 평균연령은 53.5세,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평균수준은 3,011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가 22%, 1,001~3,000만원이 38%, 3,001~5,000만원이 26% 5,001~7,000만원이 7%, 7,001만원 이상이 6.5%로서 저소득층이 약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설문응답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 도	구성비율	평균
연령	20대	723	10.75	53.5 (세)
	30대	1,153	17.14	
	40대	1,099	16.34	
	50대	936	13.92	
	60대	1,186	17.63	
	70대이상	1,629	24.22	
가구 소득	1,000만원 이하	1,494	22.21	3,011.45 (만원)
	1,001~3,000	2,563	38.11	
	3,001~5,000	1,568	26.31	
	5,001~7,000	667	6.92	
	7,001만원 이상	434	6.45	

최종 학력	중졸이하(1)	3,481	51.75	1.85
	고교재, 중퇴, 졸(2)	1,741	25.88	
	전문대재, 중퇴, 졸(3)	578	8.59	
	대학재, 중퇴, 졸(4)	854	12.70	
	대학원 이상(5)	72	1.07	
직업	자영업	567	8.43	
	임금노동	1,962	29.17	
	학생, 주부, 무직 등	4,197	62.4	

학력의 평균은 약 고2 중퇴 정도 수준으로 고졸이하가 77.6%, 전문대 이상이 22.4%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8.4%, 임금노동자가 29.2% 주부, 학생, 무직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62.4%를 차지하고 있다.

3.3. 분석모형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와 같이 생활만족도를 5점 척도인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측정하였을 경우가 순서형 종속변수이다.¹⁾ 이와 같이 종속변수가 순서형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보다는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 또는 순서형 프로빗 분석((Ordered probit model) 등을 이용하여 분석해야 정확도가 높다.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은 위와 같은 유형의 응답을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하게 된다.(이성우 외 2005)

종속변수가 서열척도인데 연속척도를 적용하는 일반최소자승법(OLSQ)을 사용할 경우 실제 설명변수의 영향이 과소평가되는 오류와 함께 추정

1) 일반적으로 종속변수는 양적인 값을 나타내며, 조사상황에 따라서는 이항형(binary type) 또는 순서형(ordered-type)값을 갖는 종속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식의 잔차인 오차항의 이분산성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명목척도에 적용하는 범주형 자료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도 부적절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다만 순위회귀모형은 일반최소자승법과 달리 결정변수의 계수, 즉 베타값을 종속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로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순서화된 종속변수의 다항 선택성과 이산성은 일반적인 선형회귀식이 가진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회귀식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y^* = \sum_{k=1}^k \beta_k X_k + \varepsilon \dots\dots\dots (1)$$

식(1)은 순서화 로짓모형을 일반 회귀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 순서화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ε 은 평균이 0인 대칭 분포이며, 이의 누적분포함수는 $F(\varepsilon)$ 으로 정의한다. y^* 는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Response Variable)이고 응답자가 관찰 가능한 응답 y 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응답자가 선택 가능한 응답(y)이 J 개 존재한다고 하면, y^* 는 1부터 J 까지 선택하는 내재적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 J 개의 응답을 구별할 만한 어떠한 기준, 일종의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의 식(2)는 범주화된 기준 y^* 와 관찰 가능한 응답 y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y=1 \text{ if } y^* \leq \mu_1 (=0) \dots\dots\dots (2)$$

$$=2 \text{ if } \mu_1 < y^* \leq \mu_2$$

$$\begin{aligned}
 &= 3 \text{ if } \mu_2 < y^* \leq \mu_3 \\
 &\quad \vdots \\
 &= J \text{ if } \mu_{J-1} < y^*
 \end{aligned}$$

이때 $\mu_1, \mu_2, \dots, \mu_{J-1}$ 은 y^* 의 경계값(Threshold)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J개의 관찰 가능한 응답 가운데 특정한 j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y=2$ 를 선택했다면 응답자는 μ_1 과 μ_2 사이의 y^* 값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μ_j 는 다양한 값들이 추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회귀분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mu_1=0$ 으로 정규화(Normalization)시켜 주게 된다. 이는 추정된 회귀식을 평행이동하는 것으로서, 확률값을 정(+)으로 만들고 동일한 벡터 공간에서 분석하기 위함이다.

순서화 로짓모형은 이산한 종속변수를 확률의 개념으로 연속성을 확보하므로 $y=j$ 를 선택할 확률 $\text{Prob}(y=j)$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위의 식에서 $y=j$ 이면 $\mu_{j-1} < y^* \leq \mu_j$ 이므로, 누적분포함수(CDF)의 성질로부터 확률값은 다음의 식(3)과 같다.

$$\begin{aligned}
 \text{Prob}(y=j) &= \text{Prob}(\mu_{j-1} < y^* = \sum_{k=1}^k \beta_k X_k + \varepsilon \leq \mu_j) \dots\dots (3) \\
 &= \text{Prob}(\mu_{j-1} - \sum_{k=1}^k \beta_k X_k < \varepsilon < \mu_j - \sum_{k=1}^k \beta_k X_k) \\
 &= F(\mu_j - \sum_{k=1}^k \beta_k X_k) - F(\mu_{j-1} - \sum_{k=1}^k \beta_k X_k)
 \end{aligned}$$

그런데 누적분포함수가 로짓함수이므로 누적확률은 다음의 식(4)로 나타낼 수 있다.²⁾

$$\text{Prob}(y \leq j) = \text{Prob}(y^* \leq \mu_j) = \frac{e^{\mu_j - \sum_{k=1}^k \beta_k X_k}}{1 + e^{\mu_j - \sum_{k=1}^k \beta_k X_k}} \dots\dots\dots (4)$$

누적 로짓분포함수를 $L(\cdot)$ 로 나타내면 식(3)의 확률값은 $j=1, 2, \dots, J$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text{Prob}(y=1) = L(\mu_1 - \sum_{k=1}^k \beta_k X_k) = L(- \sum_{k=1}^k \beta_k X_k) \dots\dots\dots (5)$$

$$\text{Prob}(y=2) = L(\mu_2 - \sum_{k=1}^k \beta_k X_k) - L(- \sum_{k=1}^k \beta_k X_k)$$

⋮

$$\text{Prob}(y=J) = 1 - L(\mu_{j-1} - \sum_{k=1}^k \beta_k X_k) (\because P(y \leq J) = 1, \mu_1 = 0)$$

그리고 순서화 로짓모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한계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종속변수가 로짓함수 즉, 보다 정확히는 로짓분포함수의 역함수를 연계함수로 쓴다는 것은 종속변수가 로짓함수의 특성을 띠게 된다는 것으로 로짓분포를 포함한 Log Odds를 연계함수로 쓰고 있는 로짓모델에서 연계함수에 대한 한계효과는 Odds와 Log Odds에 대한 한계효과를 지칭한다.³⁾

2) 로짓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함수이다. $F(\theta) = \frac{e^\theta}{1+e^\theta}$

3) 연계함수(Link Function)란 선형으로 표현된 설명변수의 항에 따른 종속변수의 분

한편, 특정 설명변수에 대한 확률의 한계효과는 식(3)을 해당 설명변수로 1계 편미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다음의 식(6)은 편미분 과정을 통해 도출한 한계효과 방정식을 나타낸 식이다.

$$\begin{aligned} \frac{\delta \text{Prob}(y = j)}{\delta x_k} &= \frac{\delta}{\delta x_k} [F(\mu_j - \sum_{k=1}^k \beta_k X_k) - F(\mu_{j-1} - \sum_{k=1}^k \beta_k X_k)] \quad (6) \\ &= [F'(\mu_{j-1} - \sum_{k=1}^k \beta_k X_k) - F'(\mu_j - \sum_{k=1}^k \beta_k X_k)] \beta_k \end{aligned}$$

식(6)을 로짓함수에 대응하게 되면, 확률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된다.

$$\frac{\delta \text{Prob}(y = j)}{\delta x_k} = \left[\frac{e^{\mu_{j-1} - \sum_{k=1}^k \beta_k X_k}}{(1 + e^{\mu_{j-1} - \sum_{k=1}^k \beta_k X_k})^2} - \frac{e^{\mu_j - \sum_{k=1}^k \beta_k X_k}}{(1 + e^{\mu_j - \sum_{k=1}^k \beta_k X_k})^2} \right] \beta_k \quad (7)$$

포와 특성을 규명해 주는 함수를 뜻한다. Odds Ratio는 표본에서 직접확률과 Odds를 구한 다음 Odds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설명변수의 계수값을 지수화해서 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Odds Ratio 추정치는 다른 설명변수가 고정된 상황에서 주어진 설명변수와 그 계수의 곱을 통해 구현되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는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각 설명변수의 계수와 설명변수의 조건을 통해 Odds에 끼치는 영향력, 즉 연계함수를 지수화했을 때 나타나는 Odds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설명변수들로 만들어지는 각각의 경우의 조합이 구현될 수 있는 확률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며, 이 조합들의 조건하에 있을 때 구해지는 Odds값이 한계효과를 지칭한다. (이성우 2005)

4. 연구결과

4.1.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모형의 유용성과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서화된 응답변수에 대한 가정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량인 비례오즈가정 검정(Score Test for the Proportional Odds Assumption)은 χ^2 값이 134.12이고 P값이 $<.0001$ 이므로 1%이하의 유의수준에서 H_0 이 기각되고 H_1 이 채택되었다.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을 검정하기 위한 결정계수 R^2 값은 0.4375였으며 수정된 R^2 값은 0.4974이었으므로 비교적 양호한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중공선성 검정을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보수적 판단기준치인 5를 초과하는 설명변수는 없었으며 Tolerance 계수도 판단기준치인 0.2보다 작은 설명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래 <표3>은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순서화로지분석 결과를 정리한 자료이다. 먼저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인터넷사용(0.0994), 주택유무(0.0641), 가처분소득(0.0599), 외식교양오락비(0.00404) 등의 변수가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소득 가정 해당여부(-0.0702) 변수는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도 가족간 잦은 의견충돌(-0.1229), 가족간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0.1338), 긍정적 생활태도(0.1167),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0.3609), 여가생활 만족도(0.6002) 등의 변수가 모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3〉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순서화 로짓모형 분석결과

	변 수	$\hat{\beta}$	표준화 계수	P-Value	exp($\hat{\beta}$)	평 균
경제적 요인	인터넷(사용=1)	0.3604	0.0994	0.0024***	1.4339	0.4355
	주택유무(유=1)	0.2476	0.0641	0.0091***	1.2809	0.5775
	가처분소득	0.00003	0.0599	0.0458**	1.000	3011.5
	저소득가정(여=1)	-0.285	-0.0702	0.0081***	0.752	0.3695
	외식교양오락비	0.00404	0.0619	0.0526*	1.004	26.399
사회적 요인	가족간 의견충돌	-0.2151	-0.1229	0.0001***	0.8065	1.9905
	가족간 논의	0.2626	0.1338	0.0001***	1.3003	3.5925
	긍정적 생활태도	0.2768	0.1167	0.0001***	1.3189	2.8601
	사회적 친분만족도	0.952	0.3609	0.0001***	2.5909	3.7520
	여가생활 만족도	1.1492	0.6002	0.0001***	3.1557	2.9219
인구통계 적요인	지역(군지역=1)	0.2666	0.0667	0.0101**	1.3055	0.2495
	배우자(유=1)	0.3783	0.0986	0.0001***	1.4598	0.6087
	최종학력	0.2704	0.1677	0.0001***	1.3105	1.8544
	가구원수	-0.0759	-0.0539	0.0416**	0.9269	2.9451
R-Square		0.4375 (Max-rescaled R-Square : 0.4974)				

주) *** p<0.01, **p<0.05, *p<0.10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각 변수들 중에서 종속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간 잦은 의견충돌(-0.1229), 저소득 가정 해당여부(-0.0702), 가구원수(-0.05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의 생활만족도는 가족간 의견충돌이 많을 때, 저소득 가정에 해당될 때,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가생활만족도(0.6002),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0.3609), 최종학력(0.1677), 가족간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0.1338), 긍정적 생활태도(0.1167), 인터넷사용(0.0994), 배우자유무(0.0986), 군지역(0.0667), 주택유무(0.0641), 외식교양오락비(0.0619), 가처분소득(0.0599) 순으로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즉 여성들은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할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간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록, 긍정적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사용하는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을 때, 도시지역보다는 군지역에 거주할 때,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가, 평균 26만 정도인 외식교양오락비의 지출이 높을수록,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주택유무나 소득과 소비지출 등의 경제적 요인보다 여가생활과 사회적 친분관계, 긍정적 생활 태도 등 사회적 주관적 요인이 더 큰 계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당초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지역구분 변수 이외에는 모든 가설들이 지지·채택되었다. 당초 가설과는 달리 군지역 거주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시지역 거주여성보다 높은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의외의 결과이나 이는 표본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4.2. 연계함수에 대한 한계효과

각 설명변수의 연계함수에 대한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설명변수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역구분 변수는 $\exp(0.2666) = 1.3055$ 로서 군지역 거주여성이 시 이상의 도시지역 여성에 비해 생활만족도 Odds가 높아질 가능성이 1.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약 1.5배 생활만

족도의 Odds가 높고, 최종학력이 한 단위 높은 여성은 1.3배, 가구원수가 한명 더 증가하면 0.93배, 인터넷 사용자는 1.4배, 주택보유가구의 여성은 1.3배, 저소득 가정 해당여성은 0.75배, 외식교양오락비 지출이 높아지면 1.004배, 주관적 평가인 가족간 의견충돌 빈도의 증가는 0.81배, 가족간 논의를 통한 효율적인 문제해결은 1.3배, 긍정적 생활태도는 1.3배,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증가는 2.6배, 여가생활만족도의 증가는 3.2배 더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4.3. 설명변수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성별, 직업, 학력은 더미변수로서 0일 경우와 1일 경우의 확률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한계효과를 산출하고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평균조건에 +1을 함으로써 두 경우의 확률을 구하고 그 차이로써 한계효과를 구하였다.⁴⁾

〈표 4〉는 모든 설명변수를 평균조건으로 했을 때 종속변수의 확률을 구한 것으로 매우 불만족(y=1)인 여성이 0.16%, 불만족(y=2)인 경우는 약 4%, 보통(y=3)인 경우는 56.2%, 만족(y=4)은 39.2%, 매우 만족(y=5)은 0.4%를 차지하여 보통과 만족의 비중이 높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표 4〉 모든 변수가 평균조건일 경우의 확률

구 분	매우 불만 Prob(y=1)	불만 Prob(y=2)	보통 Prob(y=3)	만족 Prob(y=4)	매우만족 Prob(y=5)
확 률	0.001568	0.039966	0.562688	0.392042	0.003736

4) 특정 변수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확률의 변화를 사건의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라 하며 한계효과를 구하는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위 식(3)을 해당 설명변수에 대해 1계 편미분하거나 직접 변화를 계산하여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를 구할 수 있다.

〈표 5〉는 설명변수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한계효과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군지역 거주여성일 경우 도시지역 여성에 비해 $\text{Prob}(y=1,2,3)$ 은 각각 0.04%, 0.96%, 0.054% 감소하고 만족구간인 $\text{Prob}(y=4,5)$ 는 각각 6.34%, 0.11% 증가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매우불만, 불만 보통의 확률이 각각 0.06%, 1.51%, 7.37% 감소하였고, 만족과 매우만족의 확률은 각각 8.8%, 1.3% 증가하였다.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는 보통과 만족확률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한 단위 상승하면 보통의 확률이 5.7% 감소한 반면 만족의 확률은 6.5% 증가하였다. 가구원수 1명의 증가는 만족의 확률을 1.8% 감소시키고 보통의 확률을 1.5% 증가시켰다.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의 확률이 7.2% 감소한 반면 만족의 확률은 8.5% 증가하였다. 주택보유가구의 여성은 보통의 확률이 4.9% 감소한 반면 만족확률은 5.8% 증가하였다. 저소득 가정에 해당하게 되면 만족 확률이 6.7% 감소하고 보통확률이 5.6% 증가하였다. 외식교양오락비의 지출이 10만원 증가하면 보통확률이 0.8% 감소하고 만족확률이 0.96% 증가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된 가족간 의견충돌 빈도가 한 단위 상승하면 만족확률이 4.9% 감소하고 보통확률이 4.1% 증가하였다. 문제발생시 가족간 진지한 논의로 해결하는 여성은 만족확률이 6.3% 증가하고 보통확률은 5.5% 감소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생활태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가 한단위 상승하면 만족확률은 각각 6.7%, 22.8%, 27% 증가하였으며 보통확률은 각각 5.8%, 20.8%, 25% 감소하였다.

〈표 5〉 각 변수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한계효과(다른 변수는 평균)

구 분	매우불만 Prob(y=1)	불만 Prob(y=2)	보통 Prob(y=3)	만족 Prob(y=4)	매우만족 Prob(y=5)
지역구분 (군지역=1)	-0.0004	-0.0096	-0.0544	0.0634	0.0011
배우자(유=1)	-0.0006	-0.0151	-0.0737	0.088	0.0013
최종학력	-0.0004	-0.0092	-0.0566	0.065	0.0012
가구원수	-0.0001	0.003	0.0149	-0.0177	-0.0002
인터넷사용 (사용=1)	-0.0005	-0.0135	-0.0723	0.085	0.0014
주택유무(유=1)	-0.0004	-0.0096	-0.0488	0.058	0.0009
저소득가정 (해당=1)	0.0005	0.0113	0.0558	-0.0665	-0.001
외식교양오락비	-0.0001	-0.0016	-0.0081	0.0096	0.0002
가족간 의견충돌	0.0003	0.0091	0.0407	-0.0494	-0.0007
가족간 논의로 해결	-0.0004	-0.009	-0.0549	0.0631	0.0012
긍정적 생활태도	-0.0004	-0.0094	-0.058	0.0666	0.0012
사회적 친분 만족도	-0.001	-0.0242	-0.2084	0.2276	0.0059
여가생활 만족도	-0.0011	-0.027	-0.2502	0.2703	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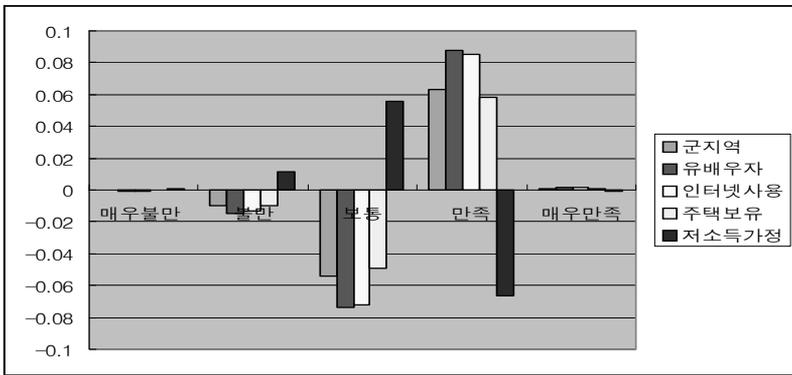
더미변수 중 만족 확률의 증감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부호에 관계없이 절댓값을 기준으로 크기순으로 정리하면 배우자(0.088), 인터넷 사용(0.085), 저소득 가정(-0.665), 군지역 거주(0.0634), 주택유무(0.058)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6〉 가치분 소득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다른 조건은 평균이라 가정)

가치분 소득(만원)	Prob(y=1) 매우 불만	Prob(y=2) 불만	Prob(y=3) 보통	Prob(y=4) 만족	Prob(y=5) 매우 만족
1,000	0.0017	0.0423	0.5746	0.3779	0.0035
2,000	0.0016	0.0411	0.5687	0.3849	0.0036
3,000	0.0016	0.04	0.5627	0.392	0.0037
5,000	0.0015	0.0377	0.5506	0.4062	0.004
7,000	0.0014	0.0356	0.5383	0.4205	0.0042
9,000	0.0013	0.0336	0.5256	0.435	0.0045
11,000	0.0012	0.0317	0.5128	0.4495	0.0047
13,000	0.0012	0.03	0.4997	0.4641	0.005
15,000	0.0011	0.0283	0.4865	0.4788	0.0053
20,000	0.0009	0.0244	0.453	0.5154	0.0062
30,000	0.0007	0.0182	0.3856	0.5871	0.0084
40,000	0.0005	0.0136	0.3207	0.654	0.0112
50,000	0.0004	0.0101	0.2611	0.7133	0.0151
60,000	0.0003	0.0075	0.0287	0.7633	0.0203
70,000	0.0002	0.0056	0.1641	0.8029	0.0272
100,000	0.0001	0.0023	0.0744	0.8588	0.0644
200,000	0	0.0001	0.004	0.4157	0.5802
300,000	0	0	0.0002	0.0346	0.9652

주관적 평가척도에 의한 변수 중 만족 확률이 증감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절대값을 기준으로 큰 순서로 나열하면 여가생활만족도(0.2703),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0.2276), 긍정적 생활태도(0.0666), 최종학력(0.065), 가족간 논의에 의한 문제해결(0.0631), 가족간 빈번한 의견충돌(-0.0494), 가구원수(-0.0177), 외식교양오락비(0.0096)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6〉은 선행연구에서 생활만족도의 요인으로 많이 논의되는 소득의 한계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다른 조건은 평균이라 가정할 때 가처분 소득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의 한계효과를 일정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매우 만족의 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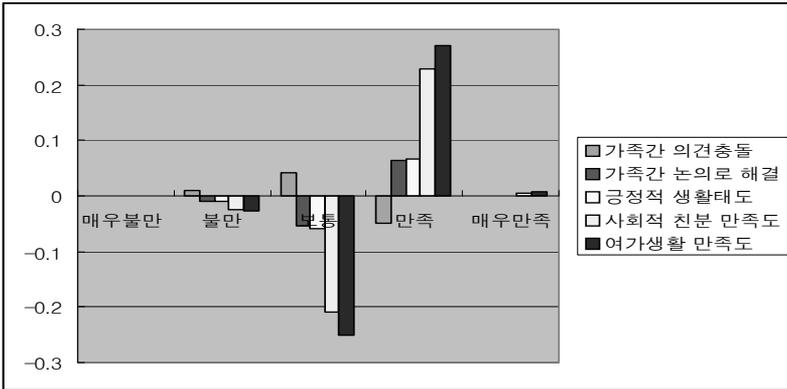


〈그림1〉 더미변수들에 대한 한계효과도의 변화

〈그림1〉은 더미변수인 군거주지역, 유배우자, 인터넷사용, 주택보유, 저소득 가정의 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도의 변화를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불만족과 보통 등의 확률을 저하시키고 만족의 확률을 높이는 효과는 배우자, 인터넷 사용, 군지역 거주, 주택보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정 해당변수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는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된 주관적 평가척도인 변수들의 만족도의 한 단위 변화에 대한 한계효과를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여가생활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긍정적 생활태도, 가족간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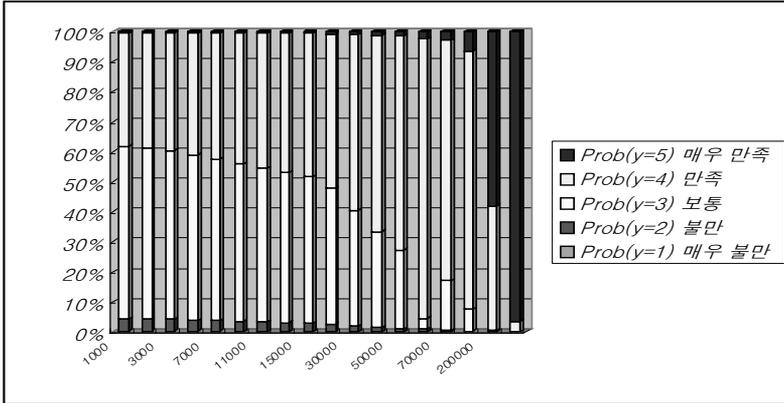
의에 의한 문제해결의 순으로 효과가 나타났고 가족간 빈번한 의견충돌은 생활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2〉 주관적 척도변수별 한계효과의 변화

〈그림3〉은 가처분 소득별 생활만족도 확률의 변화추세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보통의 확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만족의 확률은 증가하다가 가처분 소득이 20억원을 초과하면서 매우만

족의 확률이 급증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09년 2분기 말 국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약 42백만원 수준이며 90%가 연소득이 약 8천만원 이하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수준별 확률의 변화량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가처분소득 조건별 생활만족도 확률의 변화추세

5. 결론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이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인터넷사용(0.0994), 주택유무(0.0641), 가처분소득(0.0599), 외식교양오락비(0.00404) 등의 변수가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소득 가정 해당여부(-0.0702) 변수는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도 가족간 잦은 의견충돌(-0.1229), 가족간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0.1338), 긍정적 생활태도(0.1167),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0.3609), 여가생활 만족도(0.6002) 등의 변수가 모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미하게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준화계수를 살펴 보면 여가생활만족도(0.6002),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0.3609), 최종학력(0.1677), 가족간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0.1338), 긍정적 생활태도(0.1167), 인터넷사용(0.0994), 배우자유무(0.0986), 군지역 거주(0.0667), 주택유무(0.0641), 외식교양오락비(0.0619), 가처분소득(0.0599) 순으로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즉 여성들은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할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간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록, 긍정적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사용하는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을 때, 도시지역보다는 군지역에 거주할 때,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가, 외식교양오락비 지출이 높을수록,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농촌지역인 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와는 상반되는 의외의 결과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군지역 거주 더미변수와 직업 중 농업종사 더미변수를 곱한 변수 즉, 농촌에 거주하며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여성생활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이 확인되었다.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표준화계수를 보면 가족간 잦은 의견충돌(-0.1229), 저소득 가정 해당여부(-0.0702), 가구원수(-0.053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들의 생활만족도는 가족간 의견충돌이 많고, 저소득 가정에 해당될 때,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표준화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주택유무나 소득과 소비지출 등의 경제적 요인보다도 오히려 여가생활이나 사회적 친분관계, 긍정적 생활 태도 등 사회적 주관적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더미변수 중 생활만족도 확률의 한계효과에 대해 부호에 관계없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 배우자(0.088), 인터넷 사용(0.085), 저소득 가정(-0.665), 군지역 거주(0.0634), 주택유무(0.058)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관적 평가척도에 의한 변수 중 만족 확률이 증감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절대값을 기준으로 큰 순서로 나열하면 여가생활만족도(0.2703),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0.2276), 긍정적 생활태도(0.0666), 최종학력(0.065), 가족간 논의에 의한 문제해결(0.0631), 가족간 의견충돌(-0.0494), 가구원수(-0.0177), 외식교양오락비(0.0096)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외로움을 덜 느끼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높아지고 이른 만족감과 연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 소득수준이 높으므로 결과적으로 문화교양오락비의 지출이 많아져서 스트레스 해소나 여러 가지 취미·여가생활이나 지식충족의 욕구를 달성할 기회가 높아지므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있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긍정적 생활태도를 가진 여성은 부정적 생활태도를 가진 여성에 비해 낙천적이고 현재의 문제를 폭넓은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주변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해 유연하고 성숙한 태도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가족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은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화합과 협동을 증진시켜 생활만족도를 높이게 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즉, 부부간이나 가족간에 다양한 충돌 등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원만한 대화나

진지한 토의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식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인 보다 생활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 친분관계 활성화, 여가생활 증진 가족 또는 사회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 증진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 문헌 ■

- 방하남. (2000).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3, 133-154
- 박길성. (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109-139
- 박희봉, 이회창, & 김동욱. (2005). 한국인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 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의 산물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 우재영. (2009). 순서화 로짓모형을 이용한 농협의 선호도 분석: 충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6(2), 405-438
- 이성우 외.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 이정진. (2008). 우리는 행복한가. 경제학자 이정진의 행복방정식, 한길사.
- Bjornskov, C. (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 3-16.
- Diener, E., Horwitz, J., & Emmons, R.A. (1985). Happiness of the very wealth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263-274.
- Frey, B. S. &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 918-938.
- Mullis, R. J. (1992). Measures of economic well-Being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6, 119-135.

Received 25 March 2013; Revised 28 May 2013; Accepted 5 June 2013

An Analysis on Effect of Socio-Economic Factors on the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of Women

Jae Young Woo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ffect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women and partial effects using Ordered Logit Model. For this purpose, socio-economic factors are selected as major independent factors. And the data used was from the third 'Korea Welfare Panel Study'.

Analysis shows that social life factors such as the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social relationships, family member communication, and positive attitude to life had positive effects with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women. However, economic factors such as home ownership, disposable income had a lower positive impact compared to social life factors. While, satisfaction level of women is negatively related with family member discordance, and classified low-income familie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improve facilities and software that could meet women's needs of social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Odered Logit Model, Partial Effects



Jae Young Woo is a researcher o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adjunct professor of NongHyup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i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 policy.

e-mail) jywoodp@hanmail.net, phone) +82-10-7928-2259